

## 정부신뢰에 대한 부패인식의 영향

### The Effect of Perceptions of Corruption on Trust in Government

이 정 환(Lee, Jung Wha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ceptions of corruption on trust in government comprehensively. Data for the study were derived from the 2016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which collected them from a national sample of 1,051 adults aged 18 and up who lived in households in Korea using face-to-face interviews. The results show that the degree of trust in government is 1.6 on a 3-point scale, a score below the medium level, while the degree of perceptions of corruption among public officials is 3.6 on a 5-point scale, a score higher than the medium level. Perceptions of corruption is found to be a significant variable affecting negatively trust in government. For institutional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people with better evaluation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more satisfied with household finances, and supporting a ruling party have a higher probability of trust in government.

Key words: trust in government, perceptions of corruption, evaluation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public officials

## I. 서론

정부신뢰(trust in government)는 정부의 역할수행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Clark and Lee, 2001; Mishler & Rose, 2001; Turper & Aarts, 2017).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얻으면서 정책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Chen and Shi, 2001). 이에 비해 국민의 불신을 받는 정부는 국민의 비협조와 반대로 인해 효과적인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가 어렵다. 정부신뢰는 국정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공급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 정부를 신뢰하는 국민은 공직이나 공적인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금납부에 있어 별다른 저항감을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 청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학박사

(Nye et al., 1997). 정치적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직 공무원들은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지지를 받아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재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Chanley et al., 2000). 장기적으로 정부신뢰는 사회와 국가체제의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정치에 대한 시민의 무관심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만과 적대감을 형성시키면서 사회 전반에 절친 저항과 불안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체제의 안정성과 국가의 정당성을 위협할 수 있다(Easton 1965; Tyler, 1998).

2020년에 경제협력기구(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부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45%로 전체 37개 회원국 가운데 20위를 나타냈다(행정안전부, 2021). OECD가 2007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17년까지 10여년 동안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대체로 20% 중반대에 머물러 있다가 2019년에 39%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OECD 37개 전체 회원국의 평균인 50.7%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순위에 있어서도 중간에 못 미치고 또한 1위인 스위스의 85%와는 큰 격차가 있다.

정부신뢰가 정부의 역할수행은 물론 사회 전반의 체제유지와 안정에 중요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정부에서도 상당한 공을 들여 정부신뢰의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학계에서도 정부신뢰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두고 연구해오고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신뢰와 관련된 변수로 정부성과, 정부정책,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같은 제도적 변수(김지영·김경아, 2018; 신상준·이숙중, 2016; 신상준 외, 2018; 전대성 외, 2013; 최성락·전별, 2019; Choi & Woo, 2016; Kestilä-Kekkonen & Söderlund, 2016)와 개인의 소득, 교육, 성별, 대인신뢰, 정치성향과 같은 사회인구학적인 변수(김왕식, 2011; 김우철, 2017; Foster & Frieden, 2017; Mishler & Rose, 2001; Zhao & Hu, 2017)가 제시되고 있다.

한편, 다양한 변수들이 정부신뢰와 연관되어 있음으로 인해 정부신뢰에 대한 다수의 연구 결과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종류와 연구대상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이승중, 2010; Nye et al., 1997; Zhao & Hu, 2017). 이 같은 측면에서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는 보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정부신뢰와 관련된 변수로 부패에 대한 인식(부패인식)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 정부의 역할수행뿐만 아니라 정부의 청렴성이나 정직성도 중요한 요인이다(Treisman, 2000; Wang, 2016). 정부나 공직자가 부패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사회체제의 효과성과 공정성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결국 사회체제 전반에 걸쳐 불신을 확산시킬 수 있다(Miller and Listhaug, 1999). 이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사회체제 유지와 국정운영을 공식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정부와 공직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 있다(Chang and Chu, 2006; Wang, 2016).

앞에서 제시했듯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다양한 만큼 이에 대한 연구는 복합

적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부패인식을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대표성 있는 표본을 사용하여 선행연구들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한 주요 제도적 및 사회인구학적 변수들도 분석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들 변수가 정부신뢰에 대해 가지는 개별적인 관련성뿐만 아니라 통제변수의 사용에 따른 이들 변수의 독립적 효과에 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 II. 이론적 논의

### 1. 정부신뢰와 부패인식에 대한 개념

#### 1) 정부신뢰

정부신뢰는 정부와 신뢰의 용어가 합쳐진 복합적인 개념으로 학자들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다. 단순히 정부신뢰는 정부에 대한 신임(confidence)이나 정치적 신뢰(political trust)로 표현되기도 한다(Anderson, 2010).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신뢰는 사회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주민들 갖는 신임의 정도를 의미한다(Thomas, 1998). 이와 유사하게 Hetherington(1999)은 정부신뢰를 정부가 주민들의 규범적 기대에 따라 얼마나 잘 운영되는가에 기초해서 정부에 대해 갖는 기본적인 평가적 지향이라고 규정한다. Miller와 Lishaug(1999)은 정부신뢰를 정부가 주민의 규범적 기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라고 정의한다. 국내 학자로 이승중(2010)은 정부신뢰를 “정부에 대하여 국민이 갖는 긍정적 태도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규정한다. 김정숙과 정다정(2019)은 정부신뢰를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 태도”로 정의한다. 이숙중(2006)은 “정부신뢰를 정부가 시민 또는 국민의 뜻에 보다 일치하며 공익에 충실하도록 공정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믿음”이라 규정한다.

비록 학자들에 따라 정부신뢰에 대한 정의가 다소 차이는 나지만 공통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즉 다수의 학자들은 정부신뢰를 정부의 운영에 대한 국민의 태도 혹은 평가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이러한 공통점에 기초해서 이 연구는 정부신뢰를 정부의 운영에 대해 국민이 신임하는 태도라고 정의한다.

정부신뢰에 대한 정의와 함께 신뢰의 대상인 정부의 범위도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편에서는 정부신뢰의 대상을 정책을 주로 집행하는 행정부로 한정하는 접근(신상준 외, 2018; 이승중, 2010; 장용진, 2013)이 있는 데 비해 다른 한편에서는 광의의 차원에서 행정

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괄하여 정부를 규정하는 접근(김왕식, 2011; 김지영·김정아, 2018; 최성락·전별, 2019)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과 통제권을 행사하는 정치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정부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괄하는 광의의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한편 정부신뢰의 대상인 정부를 정부체제로 바라볼 것인가 또는 집권정부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정부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김병규·이곤수, 2009). 대체적으로 과거 독재체제나 권위주의체제하에서는 한 정권이 장기집권을 하면서 정부기구를 임의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정부체제와 집권정부 간의 구분이 그다지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주기적이고 경쟁적인 선거를 통해 권력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선출된 정치인들과 이들이 임명한 공직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의사결정의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제도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정부체제 자체보다는 집권 정부나 정부기구의 운영을 책임 맡고 있는 정치인이나 공직자에 대한 신뢰로 보기로 한다.

## 2) 부패인식

대부분의 사회에서 부패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부패에 대한 의미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은 물론 연구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서 상이하다(Rose-Ackerman & Palifka, 2016). 이들 다양한 의미는 부패의 범위에 있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다 포함하느냐 또는 공적 영역에만 한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Gutmann & Lucas, 2018). 먼저, 부패의 범위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Dzunic와 Golubovic(2018)는 부패를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권력을 오남용(misuse or abuse)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와 유사하게 Mistree와 Dibley(2018)는 부패를 조직으로부터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공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정의에서 부패는 공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뇌물, 갈취, 청탁, 사기, 횡령, 정실인사 등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활동이 해당된다(Rose-Ackerman & Palifka, 2016).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패를 공적인 영역에 한정하는 연구도 다수 있다. 부패 인식지수를 매년 발표하는 대표적 국제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부패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abuse)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1). 또다른 국제기구로서 세계은행은 부패를 사적인 이득을 위해 공직을 남용(abuse)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The World Bank, 2020). 이와 거의 유사하게 Treisman(2000)은 부패를 사적인 이득을 위해 공직을 오용(misuse)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Shleifer와 Vishny(1993)도 부패를 정부관리가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정부권력을 조작하거나 정부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비록 부패의 의미가 범위에 있어 민간 영역을 포함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크게 두 범주로 나뉘지만 부패에 대한 다수의 연구와 조사는 대체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의 부패를 주로 다루고 있다(Ciziceno & Travaglino, 2019; Lambsdorff, 2007; Venard, 2009). 이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부패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고 또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악하거나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Hodgson and Jiang, 2007). 부패에 대한 국내의 대다수 연구도 부패의 의미를 공적인 영역에 한정해서 사용한다(고길곤·조수연, 2017; 김준석 외, 2011; 이덕로·송기형, 2016). 공식적으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부패행위는 다음과 같이 공적인 영역과 관련된 세 가지 유형으로 규정된다. 첫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둘째,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셋째, 첫째와 둘째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부패를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비록 부패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있어 부패를 경험적으로 파악하거나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부패는 다른 범죄와 달리 관련자가 대부분 공범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어렵고 또한 부패의 발생이 관련자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져 잘 드러나지 않는다(김준석 외, 2011; Hamilton and Hammer, 2018). 따라서 부패관련 범죄 건수나 처벌 또는 징계 건수는 실제의 부패현상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나 국제투명성기구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는 부패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인이나 공직자와의 접촉가능성이 높은 기업가를 대상으로 정부나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물론 부패에 대한 인식도 실제의 부패현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부패에 대한 인식이 부패의 경험과 상관관계가 높고 부패의 전반적인 현상을 잘 반영하며 또한 자료수집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부패의 인식을 조사하는 기존 대다수의 부패 관련 연구와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패와 관련된 대다수의 연구는 부패의 측정대상으로 부패인식을 조사한다(Ciziceno & Travaglino, 2019; Hamilton and Hammer, 2018; Morris & Klesner, 2010).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도 부패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부패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 3. 정부신뢰와 부패인식

부패는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Seligson, 2002; Tanzi, 1998). 우선 정치적 차원에서 부패는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역할과 활동을

왜곡시킴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이며 이러한 민주주의의 작동에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단적인 활동이다(Warren, 2004). 현실적인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국민이 정치적 대표자를 뽑아 자신들의 권력을 위임하고 이들 대표자가 자신들을 대신하여 그리고 자신들을 위하여 정부를 운영하도록 한다. 정부와 공직자는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국민들에게 진실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와 공직자의 부패는 이러한 국민들의 가치와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 부패의 확산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을 빼앗아 버리고 정부기관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따라 정부나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결국 정부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의 상실을 가져오게 된다.

부패는 전반적인 사회제도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신뢰를 감소시키기도 한다(Morris and Klesner, 2010). 민주주의체제에서 정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그리고 소수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기관과 공직자가 법과 규정보다는 사적인 관계와 청탁 및 뇌물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면 이를 인식한 일반인들은 법의 가치와 권위를 덜 중요시하게 된다(Villoria et al., 2013). 민주주의 핵심요소인 법치주의의 원칙이 훼손되면 기존 사회제도에 대한 효과성과 제도적 공정성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약화되고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예측성과 신뢰성은 떨어진다. 부패로 인한 사회제도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불신은 사회적인 혼란과 무질서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국정을 운영하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책임지는 정부와 공직자 및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hang and Chu, 2006; Wang, 2016).

경제적인 차원에서 부패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상당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Kaufmann, 2005).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투자는 부가이익과 고용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업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조건은 정치적 및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투명한 제도와 절차이다(Seligson, 2002). 기업의 대내외적인 활동이 공식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기업은 주어진 경제여건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활동이 공무원이나 정치인과의 개인적인 연줄이나 뇌물과 같은 부정한 거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기업환경은 불투명하고 불건전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업의 활동이 특정의 공무원과 정치인에 따른 임의적이고 가변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환경에서 기업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른 투자의 위축과 경제성장의 둔화는 정부의 능력과 신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결과할 수 있다.

기업에 있어 부패는 일종의 또다른 세금이다. 부패의 대표적인 형태인 뇌물은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Shleifer & Vishny, 1993). 부패에 따른 비용증가와 수익감소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린다. 또한 뇌물이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에

서 기업은 기술개발과 혁신보다는 비공식적이고 비생산적인 공무원과 정치인과의 관계에 보다 많은 관심과 비중을 두게 된다. 이와 같이 부패로 인한 기업의 추가비용 발생과 수익감소 그리고 비생산적인 자원배분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결국 경제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Mauro 1995).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정부신뢰와 관련해서 제도적 차원과 사회인구학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제시되어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제도적 요인으로 정부성과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로 파악되고 있다(김지영·김경아, 2018; 신상준·이숙중, 2016; 신상준 외, 2018; 전대성 외, 2013; Choi & Woo, 2016).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정부의 성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경향이 있다. 정부신뢰에 관련된 사회인구학적인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종교, 학력, 경제적인 수준, 개인적 가치관, 정치적 성향, 지지정당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제시되어 있다(김왕식, 2011; 김우철, 2017; 최성락·전별, 2019; Foster & Frieden, 2017; Mishler & Rose, 2001; Zhao & Hu, 2017). 대체적으로 이들 사회인구학적인 변수들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부성과보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또 일관성이 높지는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과 연구내용에 따라 이들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포함시켜 이들 변수의 효과는 물론 다른 변수에 대한 영향을 검증한다(김왕식, 2011; 최성락·전별, 2019; Zhao & Hu, 2017). 이와 같이 다양한 변수들이 정부신뢰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인해 정부신뢰에 대한 부패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제도적 및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연구에 포함시켜 정부신뢰에 대한 개별 변수의 효과와 이들 변수 간의 상호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Ⅲ. 연구방법

#### 1. 변수와 측정

앞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가 정부신뢰에 대한 부패인식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변수들과 이들에 대한 측정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정부신뢰는 정부의 주요기관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알아보았다. 정부의 주요기관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대표하는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 정부, 국회, 대법원으로 구분하였다. 각 기관에 대한 신뢰는 ‘① 매우 신뢰’, ‘② 다소 신뢰’, ‘③ 거의 신뢰하지 않음’의 3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이들 척도는 나중에 역부호화하여 합성한 다음 분석에 사용하였다.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정부를 나타

내는 이러한 합성측정치는 단일한 문항으로 정부 전체를 나타내는 지표에 비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다 나은 측면이 있다(Turper and Aarts, 2017).

독립변수인 부패인식은 대표적인 공직자인 정치인과 공무원의 부패 연관성에 대해 물어보는 두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응답범주는 ‘① 거의 없다’에서 ‘⑤ 거의 대부분이다’의 5점 척도로 구분하였다. 응답된 두 문항은 부패의 정도를 나타내는 합성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정부신뢰와 부패인식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통제변수로 기존 연구에서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된 제도적 변수와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고려하였다. 제도적 변수로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① 매우 잘하고 있다’에서 ‘⑤ 매우 잘못하고 있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응답결과는 나중에 역부호화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에는 성별, 연령, 종교, 교육년수, 소득, 가계만족도, 정치적 성향, 지지정당을 포함하였다. 성별은 여자를 기준으로 하여 여자는 ‘0’으로, 남자는 ‘1’로 가변수(dummy)화 했으며, 연령은 만 나이를 물어보았다. 종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알아보았다. 학력은 ‘① 초등졸’에서 ‘⑦ 대학원(박사과정)’의 항목으로 나누어 물어보았으며, 응답된 학력은 실제 교육년수로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소득은 월평균 가구 총소득을 물어보았으며, 가계만족도는 가구의 현재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① 매우 만족’에서 ‘⑤ 매우 불만족’의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역부호화하였다. 정치적 성향은 ‘① 매우 진보’에서 ‘⑤ 매우 보수’의 5점 척도로 물어보았으며, 지지정당에 대해서는 조사 당시의 주요 정당에 대한 지지로 알아보았다.

## 2. 자료와 분석방법

이 연구는 2016년의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KGSS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전국의 모든 가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다단계 지역확률표본추출(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에 의해 선정한 표본을 대상으로 주요 사회적 주제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이다(김지범 외, 2019). 이들 조사 가운데 이 연구에 관련된 정부신뢰와 부패에 대한 태도는 2016년의 조사에 포함되어 있다. KGSS는 추출된 표본을 대해 조사원이 대면면접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이러한 조사방법을 통해 KGSS는 확률표본추출과 높은 응답률을 가진 대표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2016년의 경우, KGSS의 응답자 수는 1,051명이다.

먼저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자의 기술적인 특성과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비율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독립변수들이 정부신뢰에 대해 개별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변수의 측정수준에 따라 t검정,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을 포함한 이원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어



서 정부신뢰에 대한 부패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제도적 및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사용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표 1>은 이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대상자의 기술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먼저, 사회인구학적인 변수로 성별은 남녀 각각 45.2%, 54.8%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49.6세이다. 종교는 종교없음(무교) 46.5%, 불교 23.4%, 개신교 20.9%, 천주교 9.2%로 분포되어 있다. 학력은 중졸이하 24.4%, 고졸 24.6%, 2년제대졸 10.8%, 4년제대졸 32.8%, 대학원(석박사)이상 7.4%이며, 이들 학력을 재학년수로 환산한 평균 교육년수는 12.5년으로 고등학교졸업 수준을 나타낸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486.6만원으로 2016년의 월평균 가구소득 439.9만원(통계청, 2020a)보다는 다소 많은 편이다. 가계만족도는 3.2로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의 중간수준을 나타낸다.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적 지향은 진보적 31.7%, 중도적 37.6%, 보수적 30.7%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5점 척도에서의 평균 정치적 지향은 3.0을 보여준다. 지지정당은 2016년 조사 당시의 여당인 새누리당이 34.3%,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41.7%,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이 24.0%였다.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지표의 평균은 2.4로 ‘다소 잘못하고 있다’와 ‘보통이다’의 중간에 있는 수준이다.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인식도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3.9, 공무원에 대해서는 3.3으로 공무원보다는 정치인에 대한 부패 인식도가 더 높으며, 이들 두 공직자에 대한 부패 인식도의 평균은 3.6으로 ‘어느 정도 있다’와 ‘많이 있다’ 사이의 중간 정도에 놓여있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정부에 대한 신뢰는 3점 척도에서 중앙정부 1.6, 지방자치정부 1.7, 국회 1.3, 대법원 1.8로 국회에 대한 신뢰가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정부에 대한 신뢰의 평균은 1.6으로 ‘거의 신뢰하지 않음’과 ‘다소 신뢰’의 중간 정도에 있다.

<표 1> 변수의 기술적 특성

변수		특성 <sup>1)</sup>
성별(%)	남	45.2
	여	54.8
연령(세)		49.6(18.61) <sup>2)</sup>
종교(%)	무교	46.5
	불교	23.4
	개신교	20.9
	천주교	9.2

학력(%)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 4년제대졸 대학원(석박사) 평균 교육년수	24.4 24.6 10.8 32.8 7.4 12.5(4.48)
가구소득(만원)		486.6(1,218.58)
가계만족도		3.2(1.11)
정치적 지향	진보 중도 보수 평균 정치적 지향	31.7 37.6 30.7 3.0(.94)
지지정당(%)	여당 야당 무당	34.3 41.7 24.0
국정운영 평가		2.4(1.08)
부패인식	정치인 공무원 평균	3.9(.93) 3.3(.98) 3.6(.85)
정부신뢰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국회 대법원 평균	1.6(.60) 1.7(.62) 1.3(.55) 1.8(.66) 1.6(.48)

주: 1) 성별, 종교, 지지정당은 비율, 연령, 가구소득, 가계만족도, 국정운영 평가, 부패인식, 정부신뢰는 평균, 학력과 정치적 지향은 비율과 평균임.

2) (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표 2>는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정부신뢰가 명목변수별로 어떻게 차이나는지를 나타낸다. 통계적으로 정부신뢰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 변수는 종교와 지지정당이다. 종교별로 정부신뢰는 전체 평균에 비해 불교는 약간 높게 그리고 천주교는 약간 낮은 편이다. 지지정당의 경우, 여당지지자가 야당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정부신뢰가 훨씬 더 높다.

〈표 2〉 변수별 정부신뢰의 차이

변수	변수별 정부신뢰 <sup>1)</sup>	차이검증 <sup>2)</sup>
성별		
남	1.6(.47)	.379
여	1.6(.48)	
종교		
무교	1.6(.48)	3.823*

불교	1.7(.46)	
개신교	1.6(.46)	
천주교	1.5(.48)	
지지정당		
여당	1.8(.48)	61.191***
야당	1.5(.42)	
무당	1.5(.42)	

주: 1) 평균과 표준편차임.

2) 성별은 t-검정, 종교와 지지정당은 분산분석.

\* $p < .05$ , \*\*\* $p < .001$ .

<표 3>은 정부신뢰와 등간변수들 간의 이원적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정부신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값( $r$ )을 갖는 변수는 연령, 교육년수, 가계만족도, 국정운영 평가, 부패인식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가운데 연령은 많을수록, 가계만족도는 높을수록,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교육년수는 많을수록 그리고 부패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 정부신뢰는 줄어드는 관계의 특징을 보인다.

<표 3> 변수별 정부신뢰와의 상관관계

변수	상관관계 검증
연령	.151***
교육년수	-.097**
가구소득	-.053
가계만족도	.128***
정치적 지향	.050
국정운영 평가	.509***
부패인식	-.404***

\*\* $p < .01$ , \*\*\* $p < .001$ .

<표 4>는 부패인식이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또 어느 정도로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먼저 이 연구의 통제변수인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국정운영 평가만을 고려한 모형1에서는 가계만족도, 지지정당, 국정운영 평가가 정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여당지지자가 지지정당이 없

는 사람과 야당지지자보다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정부신뢰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2>와 <표 3>의 이원적 분석에서 나온 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이원적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종교, 연령, 교육년수는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인 모형1에서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종교, 연령, 교육년수와 같은 사회인구학적인 변수가 다른 통제변수의 사용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국정운영 평가가 정부신뢰의 변이를 설명하는 양은 28.3%로 나타났다.

모형2는 모형1에 부패인식을 추가시켜 이 연구의 모든 독립변수들을 종속변수인 정부신뢰에 회귀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국정운영 평가는 모형1에서 나온 통계적 유의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패인식과 이들 변수 간에 별다른 상호작용이 없음을 의미한다. 부패인식은 통제변수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표 3>에서와 마찬가지로 높은 통계적 유의도를 가지고 정부신뢰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패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전체적으로 정부신뢰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들 가운데 부패인식은 국정운영 평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패인식이 추가된 모형2가 정부신뢰의 변이를 설명하는 양은 모형1에 비해 7.7%가 늘어난 36.0%로 나타났다.

<표 4> 정부신뢰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형1	모형2
성별(여 기준)	-.023	-.010
연령	-.037	-.020
종교(무교 기준)		
불교	.027	.000
개신교	.035	.024
천주교	-.013	-.033
교육년수	.002	-.001
가구소득	-.012	-.005
가계만족도	.104***	.094***
정치적 지향	-.051	-.049
지지정당(무당 기준)		
여당	.116**	.081*
야당	.023	-.007
국정운영 평가	.476***	.407***
부패인식		-.281***
상수	1.079	1.721
R <sup>2</sup>	.283	.360
F	28.821***	37.662***

주: 회귀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beta$ )임.

\* $p < .05$ , \*\* $p < .01$ , \*\*\* $p < .001$ .

## V.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부패인식이 정부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정부신뢰와 연관된 변수로 제시된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부패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과 이들 통제변수가 정부신뢰에 대해 개별적으로 가지는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방식에 근거하여 지금까지의 자료분석에서 나온 주요 결과와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정부신뢰도는 전체적으로 3점 척도에서 1.6으로 1점인 ‘거의 신뢰하지 않음’과 2점인 ‘다소 신뢰’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간에도 미치는 못하는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3점 척도에서의 1.6은 퍼센트로 환산할 경우 30%가 되는데, 이러한 수치는 OECD의 한국에 대한 정부 신뢰도 조사결과인 2015년의 34%보다는 약간 낮고 2017년의 24%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다(행정안전부, 2021). 개별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대법원 1.8, 지방자치정부 1.7, 중앙정부 1.6, 국회 1.3의 순으로 나타나, 국회에 대한 신뢰가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특히 더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 국회가 가장 낮게 나온 비슷한 시기의 다른 조사결과와 일치한다(통계청, 2020b; OECD and KDI, 2018).

이 연구의 중요한 독립변수인 부패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전체적으로 5점 척도에서 3.6으로 3점인 ‘어느 정도 있다’와 4점인 ‘많이 있다’ 사이의 중간에 놓여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들이 공직자들의 부패 연관성을 다소 높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공직자별 부패인식도는 정치인이 3.9, 공무원이 3.3으로 공무원보다는 정치인의 부패 연관성이 더 높다. 부패인식은 종속변수인 정부신뢰에 대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부패에 공직자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의 정도가 클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는 줄어든다는 역의 관계를 강하게 입증해준다. 특히 부패에 대한 인식은 통제변수를 사용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이원적 분석에서 나온 높은 통계적 유의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변수들 가운데 국정운영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정부신뢰를 평가하거나 예측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려준다.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정부신뢰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부패에 대한 인식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부패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러한 결과는 정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정부기관과 공직자의 청렴성과 정직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Treisman, 2000; Wang, 2016).

기존의 연구에서 정부신뢰와 관련된 주요 제도적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이 연구에서도 정부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사회인구학적인 변수들은 변수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성별, 가구소득, 정치적 지향은 이원적 분석이나 다중회귀분석 모두에서 정부신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종교, 연령, 교육년수는 정부신뢰에 대해 이원적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그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변수와 정부신뢰와 관련된 이 연구의 다른 변수들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가계만족도와 지지정당은 이원적 분석과 다중회귀분석 모두에서 정부신뢰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왔다. 즉 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여당 지지자가 야당 지지자나 지지정당이 없는 사람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큰 경향이 있다. 경제적인 수준의 변수로서 가구소득은 관계가 없으나 가계만족도는 관계가 있는 결과로 나온 것은 정부신뢰에 대해서는 개인의 객관적인 경제수준보다는 주관적인 경제수준이 정부신뢰에 더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소득 그 자체는 자신의 현재 경제상태만 알려줄 뿐 이러한 경제상태가 좋아졌는지 또는 나빠졌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데 비해 가계만족도는 자신의 과거와 타인과의 비교와 종합에 의해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 좋아졌는지와 나빠졌는지를 알려준다(Solberg et al., 2002). 이 같은 맥락에서 가계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신의 경제적 수준을 좋게 만든 경제환경과 정부에 대해 더 많은 지지와 신뢰를 보일 수 있다(Espinal et al., 2006).

여당지지자에게 있어 현재의 정부나 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을 공유하고 대변하는 집단이다(Christensen and Lægrend, 2005; Gershtenson et al., 2006). 이 같은 측면에서 여당지지자가 야당 지지자나 지지정당이 없는 사람보다 정부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신뢰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같은 정치적 특성으로서 정당선호도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데 비해 진보나 보수와 같은 정치적 성향은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신뢰를 연구하는 데 있어 이들 두 변수를 다르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존 연구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제도적 요인보다 작거나 일관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이 연구에서도 성, 연령, 종교, 교육년수, 소득은 정부신뢰와 관계가 없고 가계만족도와 지지정당의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부패인식에 비해 크지 않게 나왔다. 하지만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효과는 연구대상자와 연구가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 차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결과를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Catterberg and Moreno, 2006;

Wang, 2016; Zhao & Hu, 2017). 이와 더불어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정부신뢰의 관계가 이원적 분석과 다원적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도가 상이하게 나온 결과는 정부신뢰와 관련된 요인을 찾는 차후의 연구들은 다양한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 참고문헌

- 고길곤·조수연. (2017). 시민의 부패 경험과 부패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의 관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1): 31-56.
- 김병규·이곤수. (2009).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1(3): 893-915.
- 김왕식. (2011).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7(2): 141-161.
- 김우철. (2017). 우리나라 정부신뢰 문제에 대한 이해와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3(1): 1-56.
- 김정숙·정다정. (2019).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7(1): 67-92.
- 김준석·조진만·엄기홍. (2011). 부패인식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 : 시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의 차이는 어떠한 요인에 기인하는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4): 343-371.
- 김지범·강정한·김석호·김창환·박원호·이윤석·최성수·최슬기·김솔이. (2019).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8』.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지영·김경아. (2018). 시민들의 정부정책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32(4): 405-425.
- 신상준·이숙중. (2016). 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부성과 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다중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0(2): 1-37.
- 신상준·이숙중·김보미. (2018). 경제적·정치적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 아시아 5개국 국민들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61(3): 109-142.
- 이덕로·송기형. (2016). 정부부패와 반부패행위에 관한 국민적 인식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3): 111-135.
- 이숙중. (2006). 정부신뢰와 거버넌스. 『국정관리연구』, 1(1): 143-172.
- 이승중. (2010). 정부신뢰에 대한 종교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44(1): 99-119.
- 장용진. (2013). 정부신뢰의 원인: 국가간 비교연구. 『정부학연구』, 19(3): 189-214.
- 전대성·권일웅·정광호. (2013).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 -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2(2): 181-206.
- 최성락·전별. (2019).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정부 요소 및 개인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2): 238-248.
- 통계청(KOSIS). (2020a). 『가계동향조사』.
- 통계청(KOSIS). (2020b). 『2019 한국의 사회지표』.
- 행정안전부. (20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에서 대한민국 20위 기록, 역대 최고 순위. 2021년 7월 9일 보도자료.
- Anderson, Mary R. (2010). Community Psychology,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Political Psychology*, 31(1): 59-84.
- Catterberg, Gabriela & Moreno, Alejandro. (2006). The individual bases of political trust: trends in new and established democra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8(1): 31-48.



- Chang, Eric & Chu, Yun-han. (2006). Corruption and trust: exceptionalism in Asian democracies? *Journal of Politics*, 68(2): 259-271.
- Chanley, Virginia A., Rudolph, Thomas J. & Rahn, Wendy M. (2000).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a time series analysis. *Public Opinion Quarterly*, 64(3): 239 - 56.
- Chen, Xueyi & Shi, Tianjian (2001). Media effects on political confidence and trus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post-Tiananmen period. *East Asia: An International Quarterly*, 19(3): 84-118.
- Choi, Eunjung & Woo, Jongseok. (2016). The origins of political trust in East Asian democracies: psychological, cultural, and institutional arguments.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7(3): 410 - 426.
- Christensen, Tom & Læg Reid, Per. (2005). Trust in government: the relative importance of service satisfaction, political factors, and demography.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28(4): 487-511.
- Ciziceno, Marco & Travaglini, Giovanni. (2019). Perceived corruption and individuals'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role of institutional trust. *Social Indicators Research* 141(2): 685 - 701.
- Clark, Jeff R. & Lee, Dwight. (2001). The optimal trust in government. *Eastern Economic Journal*, 27(1): 19-34.
- Džunić, Marija & Golubović, Nataša. (2018). Perceived corruption in business environment: exploring the underlying causes. *E & M Ekonomije A Management*, 21(4): 48-64.
- Easton, David. (1965). *A System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Wiley.
- Espinal, Rosario, Hartlyn, Jonathan & Kelly, Jana M. (2006). Performance still matters: explaining trust in government in the Dominican Republic.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9(2): 200-223.
- Foster, Chase & Frieden, Jeffry. (2017). Crisis of trust: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Europeans' confidence in government. *European Union Politics*, 18(4): 511 - 535.
- Gershtenson, Joseph, Ladewig, Jeffrey & Plane, Dennis L. (2006). Parties, institutional control, and trust in government. *Social Science Quarterly*, 87(4): 882-902.
- Gutmann, Jerg & Lucas, Viola. (2018). Private-sector corruption: measurement and cultural origi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8(5): 747-770.
- Hamilton, Alexander J. & Hammer, Craig. (2018). Can we measure the power of the grabbing hand?: a comparative analysis of different indicators of corruptio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8299.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Hetherington, Marc J. (1999). The effect of political trust on the presidential vote, 1968 - 96.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2): 311-326.
- Hodgson, Geoffrey M. & Jiang, Shuxia (2007). The economics of corruption and the corruption of economics: an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Issues*, 41(4): 1043-1061.
- Kaufmann, Daniel. (2005). Myths and realities of governance and corruption. *Global*

- Competitiveness Report 2005-06(October 2005)*, 81-98.
- Kestilä-Kekkonen, Elina & Söderlund, Peter. (2016). Political trust, individual-level characteristics and institutional performance: evidence from Finland, 2004 - 13.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9(2): 138-160.
- Lambsdorff, Johann G. (2007). *The Institutional Economics of Corruption and Refor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uro, Paolo. (1995). Corruption and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3): 681-712.
- Miller, Arther & Listhaug, Ola. (1999). Political performance and institutional trust. In Pippa Norris (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ance*, 204-21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ishler, William & Rose, Richard. (2001). What are the origins of political trust? testing institutional and cultural theories in post-communist societ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4(1): 30 - 62.
- Mistree, Dinsha & Dibley, Arjuna. (2018). Corruption and the Paradox of Transparency. Working Paper 03-2018. Stanford Law School, Stanford University.
- Morris, Stephen D. & Klesner, Joseph L. (2010). Corruption and trust: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evidence from Mexico.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3(10): 1258-1285.
- Nye, Joseph, Jr., Zelikow, Philip D. & King, David. C. (1997).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OECD and KDI. (2018). *Understanding the Drivers of Trust in Government Institutions in Korea*. Paris: OECD Publishing.
- Rose-Ackerman, Susan, & Palifka, Bonnie. J. (2016). *Corruption and Government: Causes, Consequences, and Refor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ligson, Mitchell A. (2002). The impact of corruption on regime legitimacy: a comparative study of four Latin American countries. *The Journal of Politics*, 64(2): 408-433.
- Shleifer, Andrei & Vishny, Robert W. (1993). Corrup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8(3): 599-617.
- Solberg, Emily C., Diener, Ed, Wirtz, Derrick, Lucas, Richard E. & Oishi, Shigehiro. (2002). Wanting, having, and satisfaction: examining the role of desire discrepancies in satisfaction with inco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3): 725-734.
- Tanzi, Vito. (1998). Corruption Around the World: Causes, Consequences, and Cures. IMF Staff Papers, 45(4): 559-594.
- The World Bank. (2020). Anticorruption Fact Sheet. <https://www.worldbank.org/en/news/factsheet/2020/02/19/anticorruption-fact-sheet>.
- Thomas, Craig. W. (1998). Maintaining and restoring public trust in government agencies and their employees. *Administration & Society*, 30(2): 166-193.
-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1). <https://www.transparency.org/en/what-is-corruption>.
- Treisman, Daniel. (2000). The causes of corruption: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Public*

- Economics*, 76(3): 399 - 457.
- Turper, Sedef & Aarts, Kees. (2017). Political trust and sophistication: taking measurement seriousl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0(1): 415 - 434.
- Tyler, Tom R. (1998). Trust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Valerie Braithwaite & Margaret Levi (Eds.). *Trust and Governance*, 269-294.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Venard, Bertrand. (2009). Corruption in emerging countries: a matter of isomorphism. *M@n@gement*, 12(1): 1-27.
- Villoria, Manuel, Van Ryzin, Gregg G. & Lavena, Cecilia F. (2013).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of administrative corruption: a study of public perceptions in Spai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3(1): 85-94.
- Wang, Ching-Hsing. (2016). Government performance, corruption, and political trust in East Asia. *Social Science Quarterly*, 97(2): 211-231.
- Warren, Mark E. (2004). What does corruption mean in a democrac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8(2): 328-343.
- Zhao, Dahai & Hu, Wei. (2017). Determinants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empirical evidence from urban China.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83(2): 358 - 377.

투고일자 : 2022. 02. 15  
수정일자 : 2022. 03. 15  
게재일자 : 2022. 03. 31

<국문초록>

## 정부신뢰에 대한 부패인식의 영향

이 정 환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신뢰에 대한 부패인식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2016년의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전국의 모든 가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가운데 선정한 1,051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대면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3점 척도에서 1.6으로 중간에 미치지 못했으며, 공직자의 부패연관성에 대한 인식도는 5점 척도에서 3.6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부패인식은 정부신뢰에 대해 역의 방향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제도적 및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여당 지지자가 야당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사람보다 정부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주제어: 정부신뢰, 부패인식, 국정운영 평가, 공직자